

아트경기 x 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 정 기 훈

‘굳이?’. 정기훈의 작업을 보다보면 떠오르는 단어이다. 그는 언제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다. 사전적 의미로 ‘굳이’는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혹은 ‘고집을 부려 구태여’를 뜻한다. 단단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며 그는 최단 노선이 아닌 우회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숨김없이 보여주며 규칙을 세워 나간다. 이러한 지점에서 그는 ‘장인’과 유사하다.



정기훈, 연마술(Grinder), 가변설치\_가죽, 뿔, FHD VIDEO, 00.09.45, 2022 (Photo by 조영하)

‘장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의 행위를 맥락을 없애고 단위로 접근해보면 굉장히 무용해보이는 측면들이 있다.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하나의 행위가 단위가 되어 일정 시간동안 반복되며 또 다른 상위의 단위를 형성한다. 파생되는 단위가 축적되는 과정을 빠짐없이 지나쳐야만 하기에 관찰자는 장인이 향하는 목적지를 쉽게 볼 수가 없다. 어쩌면 관찰자는 목적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의심마저 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장인의 길이란 종종 보편적인 사회의 밖에 자리하며 고독한 것일 테다. 사실 장인이라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도 하다. 고로 정기훈은 규칙, 단위 그리고 기호를 만드는 장인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공식과 상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칙과 단위가 기능하는 과정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있어서도 그는 기교를 부리지 않으며 그렇다고 이것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의 모든 작업은 그저 주어진 시간 속 ‘그’라는 개인이 삶을 살아가며 축적하고 있는 미시적 테크닉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일상의 궤도를 종종 이탈하지만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며 주변의 미세한 보폭을 관찰하기도 하는 미련한 고집에서 나오는 무심한 따뜻함과 위트는 ‘삶’이라는 같은 전제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관찰자들에게 마음을 불가피하게 유인한다.

## 글 조정민 / 화이트노이즈 운영 및 독립기획자



2018년 3월, 서울 방배동의 지하에서 시작된 화이트노이즈는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교류를 위한 장소로 출발하였다. 주류와 비주류, 영리와 비영리, 미술과 비미술 등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문법으로 국내외의 아티스트와 그 현장을 주목하고 탐구하고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화이트노이즈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유동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방면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유연한 아티스트 풀(pool)을 제공하고 있다.

## 작가 정 기 훈 Jeong, Kihoon b.1980 (2022 아트경기 선정작가)



적정습도(Day and Night), 200x300cm(각 50x50cm), 가습기, 종이에  
믹, 2020

정기훈은 시간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흔적을 설치와 영상 작업을 통해 연구한다. 그의 작업은 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수행하지만, 한편으로 의미가 없는 결과를 통해 무용과 유용의 가치를 교란한다. 궁극적으로 쓸모와 효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통념, 기준에 상충하는 개인을 드러낸다. (글 『문화+서울 2021』 3월호 일부 발췌) 주요개인전으로 <적정습도>(O 갤러리, 2020), <백발무중>(케이크 갤러리, 2015) 등이 있으며 2013년 인천아트플랫폼과 2020년 금천예술공장에 입주작가로 선정되었다.

## 사업소개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2022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은 아트경기 협력사 믹MEEK의 기획으로 진행, 2022년에 선정된 아트경기 작가와 다학제적 장르를 대표하는 멘토를 매칭하여 비평을 진행한다. 총 8인의 아트경기 작가와 3인의 전문가는 9월부터 11월 동안 1:1 면담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었고 그 결과 총 8편의 비평글이 작성되었다. 8편의 비평글은 작가와 협력사 믹, 전문 평론가가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며, 아트경기 작가의 다양한 해석과 장르 확장의 지점을 제공한다.